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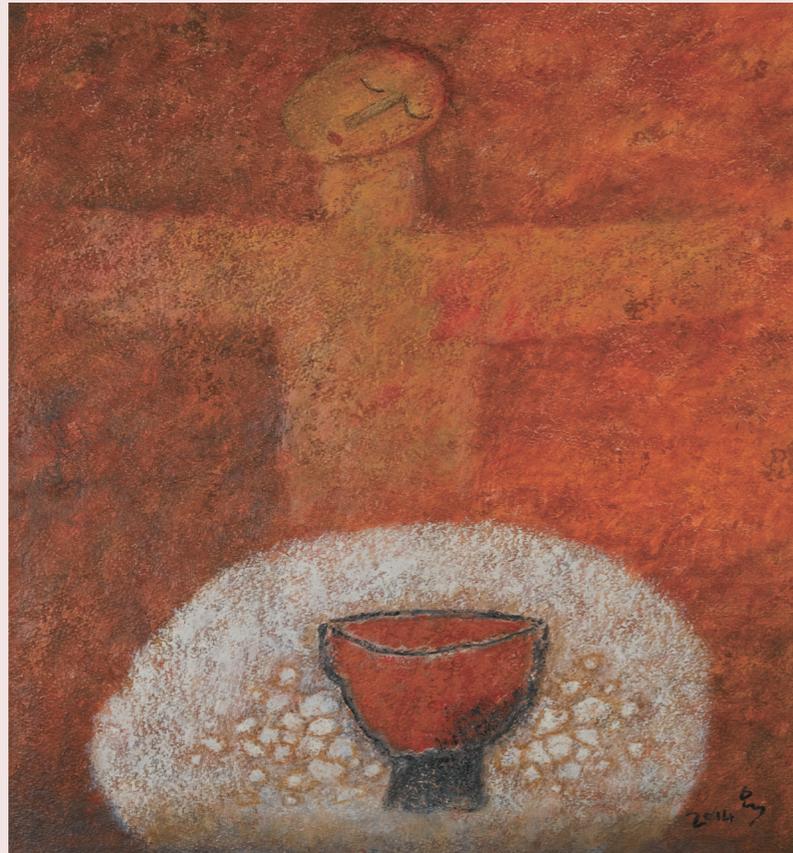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6월 11일)

## 생명의 빵(요한 6,51-58)



###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고 정점입니다.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살과 피가 되신 이 큰 신비는 사랑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팔수도회(출처: 서울주보, 2014. 6. 22.)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생명의 빵이신 주님, 제 마음 당신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 6,51)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했던 경험(성체성사적 삶)은 무엇입니까?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요한 6,56)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나의 성체성사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일체)를 체험한 적은 있습니까?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약간 긴장한 모습의 한 소녀가 주일학교 친구들의 영성체 자세를 유심히 살피더니 영성하게 손을 모아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그러나 영하지는 않고 두 손을 감싸 안은 채 자리로 들어갑니다. 놀란 사제는 급하게 성체를 다시 모셔 오고, 미사를 마친 후 그 소녀를 불러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오랫동안 아파 누워 계신 자신의 할머니가 성체를 한 번만이라도 모시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하셔서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려 그랬다고...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본당 신부님은 신자들을 통해 부모님 없는 그 소

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무척 어려운 상황임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본당 신부님과 신자들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집 청소며 필요한 생필품 등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병자 영성체를 시작합니다. 그 소녀도 조금은 늦었지만 교리를 배우고 첫영성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연중 제11주일(6월 18일)

##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다(마태 9,36-10,8)



### 열두 사도들의 파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마태 10,1)

그림 제임스 티소트 | 1886-94년, 수채화, 16.5x22.2cm, 브루클린 박물관, 뉴욕, 미국.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00번 “열렬하신 주의 사랑”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 길 잃은 양들,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을 애타게 찾는 저희와도 함께 해 주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복음 9장 36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6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38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고 청하여라.” 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라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4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8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마태 9,36)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낄 때, 이는 주님의 어떤 초대일까요?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전능(全能)이나 전지(全知)로 일하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 인간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의 말입니다. 성녀는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인 사랑의 선교회가 하는 일을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에 견주었고, 스스로를 ‘주님께서 쓰시는 몽당연필’에 비유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도 그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당신의 일을 펼치셨습니다.

희미하고 여리고 때로는 엉뚱하기만 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00번 “열렬하신 주의 사랑”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발로 뛰는 소공동체

월영성당 구역분과장 심영선(루치아)

저희 월영성당은 1998년 월남동성당에서 분가하여, 처음에 해운동성당으로 설립하면서, 그 당시 버스터미널로 사용하던 가건물에서 미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2004년 ‘달 그림자’ 라는 동네 이름대로 ‘월영성당’으로 개명을 하게 되고, 성전 건립에 대한 신자들의 강한 열망이 쌓여, 당시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땀과 눈물겨운 노력, 기도가 한데 모여 2008년 새 성전을 봉헌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성전을 가꾸고 신자들을 모아들이며 외적인 성장에 치중해 오는 동안, 어느덧 맞이하게 된 ‘본당 설립 25주년’은 우리 신앙공동체에 남다른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2023년 사목지침을 내셨고, 그 지침에 따라 성년을 훌쩍 뛰어넘어 어른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외적성장에 걸맞은 내적성숙을 이루기 위해 다짐을 새롭게 하도록 끊임없이 신자들을 다독이고 격려하십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구역분과에서도 장시간의 팬데믹으로 침체하여 있던 소공동체에 새로운 물이 흘러 들도록 물꼬를 열고, 새 생명의 활력을 얻어서 발로 뛰는 소공동체를 지향해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각 구역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건의 사항이나 구역의 고충을 경청하고 즉각적이고 신속하

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항상 소공동체 봉사자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작은 감동을 전달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본당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일선에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돌보는 소공동체 봉사자님들이야말로 발로 뛰는 천사들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주임신부님께서 구역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소공동체모임 기록장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세심하게 피드백도 해주시는데, 특히 신부님의 결단이 필요한 신자들의 건의 사항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십니다. 이에 고무되어 소공동체의 모든 봉사자들이 본당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발로 뛰며 소공동체 구성원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늘어가게 되었고 전입자, 새영세자, 냉담자, 편찮으셔서 소외되어 있던 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보살피는 선순환의 효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역분과장으로 일하며 봉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 드러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봐주진 않지만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신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공동체 봉사자들의 헌신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봉사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주 가슴 멍멍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편찮으신 분들의 안부를 물으며 주보를 가져다드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냉담자 문을 두드리며 가슴앓이하는 우리 월영성당 소공동체장님, 총무님! 가없는 주님사랑을 위로로 청하며 저도 남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 「성화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은 탁월한 전례적 성화상이다.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을 나타낸 성화상들은 그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성화상은 성경이 언어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형상으로 선포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 해설

성화상은 모두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 성녀들의 성화상 역시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 시대라고 일컫는 오늘날에는 영상 언어로서 성화상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

### 용어

#### 성화상

원래 ‘거룩한 형상’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말로 ‘성화상’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성화(聖畵)와 성상(聖像)을 통틀어 지칭한다.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전례 시기의 중심은 무엇인가?」

전례 시기의 중심은 주일이다. 주일은 전례주년 전체의 토대이며 핵심으로서, 축일 중의 축일인 부활절을 경축함으로써 절정을 이룬다.

### 해설

전례 시기의 중심은 주일이고, 전례주년의 중심은 부활 대축일이다. 주일은 축일 중의 축일인 부활절을 경축하는 날이다.

### 용어

#### 주일/주님의 날

이날을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부활로 스스로 주님이심을 보여 주셨다.

#### 전례시기

일반 세상사에 때 또는 시기가 있듯이 전례에도 시기가 있다.

#### 전례주년

교회는 일 년을 주기로 하여 부활 대축일을 중심으로 강생과 성탄과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 신비 전체를 경축한다. 따라서 전례주년은 성탄대축일에 앞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시기, 부활대축일에 앞서 40일 동안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사순 시기,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부활 시기, 그 밖의 시기인 연중 시기로 나누어진다.

#### 축일

하느님, 그리스도, 성령, 마리아와 성인들, 천사들의 거룩한 신비와 구원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대축일, 축일, 기념일 등으로 구분하지만 이를 통틀어 축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